갈마동 다목적체육관(수영장)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

의 안 번 호	4634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6.
발 의 자 : 정능호 의원
찬 성 자 : 강정수, 설재영, 신진미, 김동성, 박용준, 김태민, 최병순, 정홍근, 정인화, 오세길, 송용석, 최미자, 박순호, 이원배, 함미정, 김명현, 양유환, 최혜연, 김세원(19인)

1. 주 문

○ 갈마동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간 생활체육·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목적 체육관 및 노인복지시설 복합건립과 관련 부지 활용 및 행정 절차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함

2. 제안이유

○ 갈마동은 인구가 많은 주거지역임에도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해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에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전시 소유 갈마동 424-5번지 일대 텃밭 부지를 활용한 체육·복지 복합 생활SOC 시설 조성을 건의하고자 함

3. 수신처: 국토교통부 장관, 대전광역시장, 대전광역시 서구청장

4. 건의안: 별첨

갈마동 다목적체육관(수영장)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촉구

건 의 안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

갈마동 다목적체육관(수영장)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

갈마동은 대전 서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, 내동과 월평동 등 인접 지역과도 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. 이처럼 많은 주민이 생활하는 지역임에도 생활체육 수요에 비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.

특히 수영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지만, 기존 공공 수영시설은 이용하려는 주민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. 국민생활관 등 기존 시설의 프로그램은 신청 경쟁이 치열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렵고, 이른 새벽부터 신청을 위해 대기하는 주민들도 발생하고 있다.

이는 갈마동 생활권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. 이제는 기존 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. 갈마동 생활권 안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.

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, 탁구, 농구, 생활체조, 헬스 등 다양한 종목을 수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. 무엇보다 주민 수요가 높은 수영장을 핵심 시설로 포함해야 한다.

수영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수영과 체력 증진, 성인의 건강관리, 어르신의 건강 및 재활 등 모든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이다.

따라서 갈마동 다목적체육관은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생활체육 거점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.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, 복지와 사회적 교류를 지원할 공간도 필요하다.

이에 다목적체육관(수영장)과 노인복지시설을 결합한 세대통합형 복합시설로 조성할 것을 건의한다.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한 공간에서 건강과 여가,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공공시설의 활용도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. **특히 갈마동 424-5번지 일대 대전광역시 소유 옛 텃밭 부지를 복합시설 건립 후보지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.**

공공 소유 부지를 활용하면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, 주민들의 생활권 가까이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도시계획과 토지이용, 공유재산 등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,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풀어나간다면,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.

현재 갈마동에서는 다목적 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, 주민 서명운동도 추진되고 있다. 이는 갈마동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다.

이에 본 의원은 갈마동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, 모든 세대가 가까운 곳에서 체육과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.

하나. 대전광역시는 다목적체육관(수영장)과 노인복지시설을 결합한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라.

하나. 대전광역시는 갈마동 424-5번지 일대 대전광역시 소유 옛텃밭 부지의 공공시설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,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라.

갈마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다. 대전광역시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, 공공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영장·다목적체육관·노인복지시설이 함께하는 세대통합형 생활SOC 거점을 조성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.

2026년 9월 22일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일동